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30일

CUOMO 주지사, 2014년도에 고용주들의 비용을 26% 절감하는 뉴욕주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설명

이번 개선으로 뉴욕주의 고용주들은 내년에 8억 달러 그리고 매년 3억 달러를 절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산재보험 제도에 의거 고용주들의 비용을 2014년도에 26% 절감하고 기업체 및 지자체들의 년 경비를 3억 달러 절약시킬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구제법은 고용주들의 사정액을 18.8%에서 13.8%로 삭감하고(이는 1998년 이래 가장 큰 삭감임), 모든 자가보험 고용주들에게 약 5억 달러의 일회 산재보험 사정액 절감을 제공합니다.

“산재보험 제도 개선으로 전주의 기업체들에게 큰 절약을 제공하고 그들이 이 가외의 자금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드릴 것 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에서의 비용 절감으로 우리는 뉴욕주의 고용주들에게 2013년에 8억 달러, 그 이후 매년 3억 달러를 절약시켜 드립니다. 이는 전주의 기업, 지자체 및 교육구가 즉각 느낄 엄청난 절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뉴욕주에서의 사업 수행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우리는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도 선두에서 종합 검토하여 우리 고용주들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2013-14 예산의 일환으로 주지사가 서명한 비즈니스 구제법은 사정으로도 알려진 산재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비용을 두 가지 방법으로 줄임으로써 8억 달러 절약을 달성합니다. 먼저 재개설 케이스 기금을 종결함으로써 뉴욕주의 모든 고용주들이 년 사정액 3억 달러를 절약합니다. 최근 몇 해동안 재개설 케이스 기금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도 그 원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금 폐쇄는 또한 산재보험 제도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임으로써 고용주들에게는 또 다른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구제법은 고용주 사정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구식의 일관성이 없고 과도하게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합니다. 구제도와 달리 신제도는 모든 고용주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구를 포함하여 뉴욕주의 자가보험 고용주들은 클레임 준비금에서 5억 달러의 일회성 절감을 실현할 것입니다.

Korean

이러한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뉴욕주는 본 제도에 오래 지속될 긍정적 영향을 미칠 다른 두 이니셔티브도 금년에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뉴욕주는 eClaims로 알려진 전자적 부상 신고 제도의 첫 번째 단계를 구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3월까지 보험회사와 제3자 관리자는 종이 대신 전자적으로 부상 정보를 제출할 것입니다. 고용주들을 위해 더 많은 클레임 정보가 제공되고 보험 급여가 더욱 신속하게 지급되며 마찰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상위원회는 이제 뉴욕주 산재보험 제도를 평가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으로 알려진 종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적인 노력에서 현재 존재하는 뉴욕주 산재보험 제도를 검토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부상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필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제도를 재창조할 것입니다.

뉴욕주 자가보험협회의 특별고문 Steven Scot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고용주들이 지고 있는 법정 사정 부담을 상당히 낮추고 그것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낮춘 주지사님과 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 겸 CEO Heather C. Briccett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협의회는 산재보상위원회 사정액의 이 상당한 삭감과 간소화된 새 사정 방법을 환영합니다. 주지사의 2013년 개혁 패키지 일부의 이 이행은 뉴욕주 산재보험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더 비용이 작게 들도록 함으로써 뉴욕주 경제 성장에 장애가 덜 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부상 근로자를 돌보고 뉴욕주 고용주들을 위해 비용 곡선을 꺾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Unshackle Upstate의 회장인 Brian Samp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산재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계속 찾아야 합니다. Cuomo 지사와 그의 팀은 산재보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부상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당한 비용 절감 조치를 찾기 위해 비즈니스 공동체와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오늘 제정된 개혁은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필수 보험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전국독립비즈니스연맹의 뉴욕주 지부장 Mike Duran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점증하는 산재보험 비용은 뉴욕주 소기업의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Cuomo 지사님은 기업체 및 노동계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제정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비용 삭감은 그 노고의 열매이며 우리는 이 필요한 비용 삭감 조치를 제정한 지사님의 집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회장 겸 CEO인 Kathryn Wyl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산재보험 제도와 관련된 이 개혁과 비용 삭감은 고용주들에게 주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훌륭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Long Island Association의 회장 겸 CEO인 Kevin Law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뉴욕주에 더 좋은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 개혁은 LIA의 지지를 받았으며 고용주들을 위해 사정액의 25% 이상 삭감과 년 3억 달러 이상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월에 뉴욕주는 지자체들과 기타 자가보험 고용주들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여 이 새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 전환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새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BusinessReliefAct@wcb.ny.gov에서 산재보상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